스위스의 自動車市場

協會業務部

1. 自動車市場 現況

(1) 輸入實績

스위스 自動車業界는 80년중 다른 先進 歐美諸國의 불투명한 展望과 일부 主要 메이커의 缺損에도 불구하고 乘用車 및 콤비카의 新規登錄臺數가 28만453臺를 기록, 지금까지 최고 기록年度였던 79년의 28만102臺를 突破하여 새로운 販賣 新記錄을 수립하였다.

全量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自動車業界의 이와 같은 好況은 다른 歐美諸國에 비해 분명히 만족할 만한 狀況이나 收益面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밝은 상태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市場占有率을 높이기 위한 有名 메이커들의 角逐戰은 부분적으로 輸入業者들의 마진폭을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自動車 메이커 판매 에이젠트들은 自動車 供給國들의 일반적인 景氣局面에 영향을 받아 販賣價格 압박을 최근 뚜렷이 느끼고 있다.

日本産 자동차들도 円貨 강세로 지금까지의 價格 경쟁에서의 優位를 다소 위협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自動車 輸入業者와 去來商들은 유스트카의 在庫急增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新規登錄車輛을 통계로 보면 日本産 車種이 눈부시게 스위스 市場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은 75년 沈滯局面을 벗어난 이후 더욱 뚜렷이 나타나 80년의 경우 日本産 自動車의 市場占有率은 75년 8.4%에서 무려 14.3%나 增加한 22.7%를 기록하여 西獨에 이어 처음으로 프랑스를 누르고 第2位의 供給國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곳 現地專門業者들은 최근 日本車의 價格 경쟁력이 점차 鈍化되고 있는 점과 景氣沈滯 국면에서는 日本車種이 비교적 敏感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日本産 自動車의 스위스 占有率이 23% 이상에 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와 같은 觀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위스 自動車市場이 景氣下降 국면에 대한 조짐 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日本産 車種의 끈질긴 販賣전략, 즉 장기적 관점에서 西歐 메이커와 전통적으로 쌓아 올려진 支柱顧客層(Stammkundschaft)을 잠식, 스스로의 支柱顧客層 형성에 마켓팅의 방향을 設定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結果, 成功을 거두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日本産 車種이 더 伸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支柱顧客層은 不況期에 있어서 제로점으로 빠져 들어 가는데 制動을 거는 일종의 安全瓣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車種別 販賣現況

스위스 自動車市場이 80년중 기록적인 販賣好況을 나타냈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擴大가 아닌 약간의 數的 增加이기 때문에 日本産의 진출이 현저히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旣存 유럽産 自動車의 販賣 減縮이라는 비싼 대가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車種別로 販賣伸張率을 보아도 닷선이 69.8%,

도요다가 43.1% 前年보다 伸張되어 최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 기간중 가장 販賣 감축을 보인 車種은 포드로 同 기간중 18.1%의 減退를 보이고 있다. 最多 供給車種은 항상 선두를 두고 격돌하고 있는데 폭스바겐과 Opel 중 다시 한번 폭스바겐이 Opel을 누르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需要動向을 보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油價의 影響으로 燃料節約型 小型車가 다시 한번 選好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저렴한 가격, 車內의 충분한 공간, 엔진의 優秀性, 快適한 走行 등이 販賣誘因의 主要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유럽 및 日本 自動車 메이커들은 바로 이와같은 주요 챠밍 포인트의 硏究, 開發을 위하여 수10억 달러의 돈을 投資했으며, 특히 日本 車種인 도요다의 Corolla와 닷선의 Cherry는 스위스 市場 내에서 새 모델 이미지로 큰 成功을 거두었다.

반면에 포드는 競爭力있는 모델 開發 및 선택에 失敗한 것이 지난 해 販賣減退에 가장 큰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同社가 내놓은 새로운 모델 Escort는 포드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장을 열지도 모른다는 것이 現地의 觀測이다.

2 市場展望

(1) 主要國別 市場占有率

스위스 自動車去來商協會에 따르면 스위스 自動車 市場은 小型乘用車가 80년중 39.0%로 전년의 35.8%에서 伸張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中型車가 40.3%로 전년의 42.3%에서 減退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한편 Coupés 스포츠 카와 같은 첨단의 高級車種은 전통적으로 景氣에 덜 민감하다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80년의 경우 販賣改善까지 보이고 있으며, 엔진의 驅動力 전달 형태에서는 Front Wheel Drive型이 54.1%를 점유하여 전통적인 型(엔진은 前端部, 驅動力은 下端部)을 누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主要國別 스위스 市場占有率

(單位 : %—占有率)

	1979	1980
1. 西 獨	41.4	38.7
2. 日 本	16.0	23.0
3. 프 랑 스	21.3	19.4
4. 이 태 리	10.9	11.2
5. 스 웨 덴	3.2	2.8
6. 美 國	3.4	2.5
其 他	3.8	2.4

스위스 總 乘用車臺數는 현재 225만臺로 2.8名꼴로 乘用車 1臺를 보유하고 있어 世界最高의 乘用車保有率(國民 1人當)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數年間의 乘用車 輸入現況을 감안하면 앞으로 스위스 市場은 포만 상태를 나타내지 않을까도 觀測되지만 逆으로 지속되고 있는 自動車景氣의 好況은 보유하고 있는 1臺의 차종 외에 제 2 차종의 購入이라는 새로운 趨移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豫見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 趨移의 조짐으로는 지난해 自動車 1臺의 走行距離가 1만4천km로 전년의 2만km보다 줄었다는 점이며, 現地 業界에서는 이를 눈여겨 注視하고 있다.

(2) 市場 進出 戰略

스위스 自動車 輸入商들은 韓國 自動車業界의 對스위스 進出을 수차에 걸쳐 勸奬한 바 있다.

이와같이 勸奬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위스 自動車市場이 全面 海外輸入에 의존하고 있어 景氣를 덜 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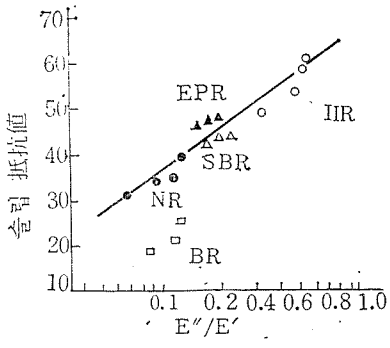
② SKODA 등 東歐의 低賃金 自動車 메이커들이 市場 침투를 위해 최근 數年間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向後 수년내 進出치 못할 경우 市場開拓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③ 스위스의 所得水準과 市場特性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供給先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여타 輸出品目과 관련 自動車 輸出을 계기로 重化學製品의 진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 多角的인 면에서 나온 것이다.

……≪p. 32에 계속≫

이 制動性能은 가장 不良하다. 長短點의 특성을 잘 活用하여 制動性能, 耐磨耗性, 乘車感 등을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트레드 패턴까지 考慮하여 全體의 性能 밸런스를 維持하면서 回轉抵抗을 얼마나 작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課題인 것이다. (日本ゴム協會誌 81. 2)



〔그림 8〕 制動性과 고무의 種類[8]

參 考 文 獻

1) 今井祥雄 : 自動車技術, **31**, 808(1977)
2) トヨタ技術の 友, **29**(2), 32(1977)
3) DUNLOP, UK 資料
4) W.W. Curtiss ; SAE 690108(1969)
5) D.R. Elliot ; SAE 710575(1971)
6) J.M. Collins ; *Trans. Inst. Rubber Ind.*, **40**, (6) 239(1964)
7) A.D. Dingle ; *Rubber World.* **143**, 〔1〕93(1969)
8) A.C. Bassi ; *Rubber Chem. Technol.*, 112, 38(1965)

☆ ☆ ☆

≪p. 44 의 계속≫

물론 效果的인 自動車 진출을 위해서는 安全 規定 등에서 다른 市場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고, 최초 數年間 損失까지도 甘受해야 할 만큼 弘報 등에 注力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스위스가 바로 유럽 市場에서 테스트 마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더우기 現地에서 가장 有力한 自動車輸入商인 AMAG 등이 精密한 市場調査 끝에 우리나라 自動車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確信을 갖고 우리 業界와의 접촉을 試圖한 바도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장기적인 視野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 業界는 對스위스 進出을 모색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각별한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바이다.

(KOTRA 海外市場 81. 4. 24)